

# 16세기 사화기에 있어서 호남학문의 형성과 전개양상\*

韓睿嫻\*\*

〈차례〉

- I. 머리말
- II. 기묘사화 전후의 호남학문의 형성
  - 1. 김광필의 영향
  - 2. 조광조와 호남사림
- III. 『소학』 중시의 도학적 전통
  - 1. 김인후의 학문
  - 2. 유희춘의 학문
  - 3. 기대승의 학문
- IV. 맺음말

## I. 머리말

조선초기의 학문풍토는, 관변의 실용성이 강한 詞章學과 在野의 수신적 성향이 강한 性理學으로 나눌 수가 있다. 이 두 종류의 학문경향은 지역적으로도 구분이 가능하다. 즉 정치·외교의 중심지였던 近畿地域은 사장학이 강세였던 것에 비하여, 재지사족인 사림과의 본거지였던 嶺南地域은 성리학적 경향이 강세였다. 여기에서 사장학에 능숙하였던 중앙의 권신들을 勳舊派라고 지칭하고, 영남의 성리학자들은 ‘영남사림’이라고 지칭하였다.

그런데 연산군의 폭정이 끝나고, 중종반정이 거쳐지나가면서, 영남지역의 성리학적 성향이 近畿 및 충청도 일원에도 확산되기에 이르렀다.<sup>1)</sup> 이에 중종시대 즈음에 ‘기호사림’이라는 호칭이 불려지게 되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사료에 ‘호남사림’이라는 명칭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sup>2)</sup> 일반적으로 기호사림에 포함시켜 호칭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사림이라 불려질 정도로 성리학에 조예가 깊은 학자가 없었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성리학 쪽에서는 주목을 받지 못하였던 호남지역이 문학방면에서는 일찍부터 주목을 받아 그 명성이 높음을 확인하게 된다. 조선 중기 이후 ‘호남한시’ 또는 ‘호남가단’으로 불려지던 것이 그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호남의 한문학이 꽃을 피우기 바로 전 시기, 즉 사화기에 있어서 호남지역의 학문풍토와 그 변화 양상을 고찰하여 이 지역의 학문적 특성을 이해함에 토대로 삼고자 한다. 사화기를 선택한 이유는 호남사림 형성과 발전에 있어서 호남 외부의 요인이 큰 비중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2-074-BL-1071)

\*\* 고려대학교

1) 이병휴, 「현량과 급제자의 성분」, 『대구사학』 12·13합집, 1977.

2) 고영진, 「16세기 호남사림의 활동과 학문」, 『남명학연구』 3호, 남명학연구소, 1993.

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남에 있어서 성리학의 수용과 발전은 호남 내부의 조건도 갖추어져 있었지만, 특히 近畿지역에서 유배 온 인사들의 영향이 지대하였기 때문이다.

본 소고는 ‘호남사림’의 학문적 특성이 밝혀져 호남사림의 독자성을 인정하여 기호사림에서 분리 독립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호남사림의 독자성에 대한 이해가 전체되어질 때만이 그 다음에 오는 호남한문학의 독자성을 밝히기에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조선시대는 시인이라 불리어도, 기본적으로 성리학적 교양을 갖추고 있으면서, 다만 유학의 경학적 문필 활동 보다 문학적 저술활동을 왕성하게 하거나, 그 당시에 시로 이름이 알려진 경우를 지칭하기 때문에 그들은 호남사림으로서의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K C I

## II. 기묘사화 전후의 호남학문의 형성

조선시대의 호남지역은 서울의 정치·사회적 영향이 그다지 미치지 않는 지역이었다. 『택리지』에 의하면, “땅은 기름지고 서남쪽이 바다에 면해 있어 물산은 타 지역에 비하여 풍부하지만, 습속이 노래와 여자를 좋아하고 사치를 즐겨하며 학문에 힘쓰지 않아 과거를 통하여 현달한 사람은 경상도에 비교하면 적은 편”이라고 하였다.<sup>3)</sup>

이러한 정치적·경제적 이유로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이르는 시기에 많은 姓氏가 고려에 대한 의절을 지키기 위하여, 또는 세조의 불의에 협력하기를 피하여 이 곳 호남으로 이주하여 왔다. 호남이주 가문에 대해서는 이미 조원래씨의 실증적 연구<sup>4)</sup>가 있어 많은 도움을 받는다. 중종·명종 대에 오면, 호남 인사들이 대거 중앙에 진출하는데, 그들의 출신성분은 대부분 러말선초에 호남으로 이주하여온 가문들이라고 한다. 이러한 호남이주 현상은 연산군 때까지 계속되다가, 1506년 중종반정을 계기로 새 정부에 참여하려는 호남 인사들이 중앙 진출을 시도하게 되면서 그치게 되었다. 이런 사실은 당시의 司馬榜目이나 문과방목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고, 실제로 중종대로부터 선조 대에 이르기까지 각종 과거에서 호남출신의 사류들 가운데 장원급제자 많았다고 한다.

예를 들면, 朴祐(중종 2, 지사시), 柳沃(중종 2, 식년문과), 朴祥(중종 21, 문신중시), 羅世纘(중종 31, 문신중시·중종 33, 탁영시), 李萬榮(중종 33, 별시문과), 梁應鼎(중종 35, 생원시·명종 11, 문신중시), 鄭淹(명종 7, 생원시), 朴淳(명종 8, 친시문과), 高敬命(명종 13, 식년문과), 鄭澈(명종 17, 별시문과), 李潑(선조 6, 알성문과), 鄭詳(선조 7, 별시문과) 등과 같은 인물들 이다.

이들은 중종반정 이후 호남지방에 기반을 두면서 상경하여 從仕하는 경향이 두드러졌고, 당시의 조광조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의 신진사류들과 함께 혁신세력이 되었다. 그러나 조광조의 개혁이 실패하면서 일어난 거둬진 사회에 연루되어, 다시 호남지역으로 귀향하여 재지사족으로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강화시켜 나갔다.

### 1. 김굉필의 영향

호남학문의 형성기를 고찰하면서 제일 먼저 주목하여야 할 인물은 寒喧堂 金宏弼(1454 ~ 1504)이다. 영남사람의 태두인 김종직의 제자인 그는 스스로 ‘小學童子’라고 칭할 정도로 성리학의 실천 수신서인 『소학』을 중요시 하였다. 김종직은 문하에 들어온 김굉필에게 『소학』을 교수하면서 말하길, “참으로 학문에 뜻을 두었다면 이 책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하였고, 김굉필은 이 말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열심히 실행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굉필은 또 소학의 중요성을 시구에도 남기고 있다.

문장을 배우느라 오히려 아직도 天機를 알지 못하였는데,

『소학』의 글 속에서 어제의 잘못을 깨달았노라.

業文猶未識天機, 小學書中悟昨非.

3) “地饒沃, 西南濱海, 有魚鹽秔稻絲絮楸竹木橘柚之利, 俗尚聲色奢侈, 人多儂薄傾巧, 而不重文學, 以故科第顯達遜孫於慶尙” 李翼成 譯, 『擇里志』, 八道總論-全羅道, 을유문화사, 1971, 304쪽.

4) 조원래, 「사회기 호남사람의 학맥과 김굉필의 도학사상」, 『동양학』 제25집, 1995, 3~4쪽.

그는 1498년 무오사화가 일어나자 김종직의 문인이라 하여 杖刑을 받고 평안도 熙川에 유배되었다가, 다시 1500년에는 전라도 順天에 옮겨져 유배생활을 보내다가, 1504년 갑자사화로 賜死되었다. 호남학문이 김굉필의 영향을 받게 된 것은 이 죽기 전 5년 동안의 기간이다.

그가 희천에서 유배할 때 얻은 제자가 조광조라면, 순천에서 유배하며 얻은 제자는 崔山斗(1483~1536)와 柳桂隣(1478~1528)이라 하겠다. 최산두의 학문은 金麟厚, 유희춘에게 전해지고, 유계린의 학문은 두 아들 성춘·희춘에게 전해졌다. 이들 김인후와 유희춘은 호남사림을 대표하는 인물들로 조광조의 기묘사화에는 직접 연계되지 않지만, 조광조의 신원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통하여 정치적 노선 방향이 동일하다.

따라서 김굉필의 유배지에서의 교육활동과 사상적 영향 관계의 고찰은 호남학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김굉필 학문의 중요한 키워드는 『소학』과 『근사록』이라 할 수 있다.

『소학』은 주자가 교열을 보고 제자 劉子澄이 편집한 책으로 내편과 외편으로 나뉘어 있다. 내편은 다시 立教, 明倫, 敬身, 稽古로 나뉘고, 후편은 嘉言, 善行으로 나뉜다. 내편에서는 중국 고대의 많은 故事와 공자 등 성현의 말을 기록하여 가르치고, 외편에서는 漢代 이후 宋代에 이르기까지 孝婦와 주자학자 등의 언행을 기록하여 교훈으로 삼고 있다.

『小學』은 이름 그대로 교육기관에서 8세 이상의 학생들이 필수과목으로 배우는 과목으로, 15세가 되면 『大學』을 배우기 시작하였는데, 김굉필은 나이 30이 되도록 이 책만을 읽었다고 한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론위주의 ‘爲人之學’에 힘쓰지 않고, 실천위주의 ‘爲己之學’에 매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김굉필은 조광조등 제자에게 ‘君子儒’와 ‘小人儒’의 차이점을 되풀이하여 설명하고,<sup>5)</sup> ‘위기지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참다운 군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기지학’에 노력하여야하고, 학문을 하기 위해서는 ‘靜’해야 함을 강조한다. 『소학』의 嘉言에 나오는 “고요(靜)하지 않으면 학문을 이룰 수 없다”(非靜 無以成學)의 구절을 그는 누차에 걸쳐 제자들에게 강조하였다. 김굉필은 제자들에게 설명하길, 천지만물은 정지된 상태의 고요함 가운데 장차 나타날 움직임의 기미가 있고,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이다. 항상 일없이 고요하게 있을 때 군자와 소인으로 갈리게 되는데, 靜해야만 인의예지의 본체를 구비하게 되므로, 배우는 사람은 고요함을 바탕으로 삼고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 고요함의 바탕이 이루어지면 경건함(敬)에 의해 군자가 된다고 한다. 敬은 誠으로 사람 마음의 오묘함을 밝히는 것으로, 이것에 의해 대학의 수신·제가·치국·평천하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한다. 이 敬에 대한 설명은 『근사록』에 입각하고 있다.

『근사록』은 주자가 편찬한 책으로 알려져 있으나, 사실은 그의 친구 呂東萊와 함께 엮은 책이다. 1권은 인간 본성의 근원을 밝히는 「道體」이고, 2권은 학문하는 요령의 「爲學」이며, 3권은 지식을 이루는 「致知」이고, 4권은 마음을 함양하는 「存養」이며, 5권은 힘써 행하는 「克治」이고, 6권은 집안을 다스리는 「家道」이고, 7권은 관직에 나가고 물러나는 도리의 「出處」이고, 8권은 나라 다스리는 방도의 「治體」이고, 9권은 나라 다스리는 법의 「治法」이고, 10권은 「政事」이고, 11권은 사람을 가르치는 방도의 「教學」이고, 12권은 경계하고 삼가는 방도의 「警戒」이고, 13권은 이단을 구별하는 「辨異端」이고, 14권은 성현들이 서로 도를 전한 계통을 논한 「觀聖賢」이다.

김굉필이 敬을 설명할 때, 자주 인용하였던 것이 『근사록』의 4권 「存養」편에 있는 구절이었다. “오직 하나로 하는 것을 敬이라고 한다”(主一之謂敬)는 것이 그것이고, 이는 마음에

5) 『논어』, 「용야편」, “女爲君子儒 無爲小人儒”.

잡된 생각이 없이 오직 하나에 집중하면 거기에 敬이 있게 된다는 것이다.

奇大升은 김굉필의 행장을 다음처럼 기록하였다.

선생은 날로 『소학』과 『대학』을 외는 것으로 학문의 규모를 삼고 육경을 깊이 탐구하여 힘써 誠敬을 마음에 간직하고, 存養省察을 體로 삼고, 수신·제가·치국·평천하를 用으로 삼아 기필코 대성인의 경지에 이르려 하였다.

김굉필은 자신의 학문을 닦고 실천하기 위하여 거의 參禪僧에 가까운 노력을 하였으며, 제자들은 그의 그런 독실한 자세에 感發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지나칠 정도로 엄숙하게 수련하는 그의 학문자세를 두고 남명 조식은 『師友錄』에서 말하길, “한훤당의 학문은 비록 실천에는 독실하나 도학 공부에 있어서는 미진한 점이 있는 듯 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그의 이런 독실한 학문자세는 희천에서의 제자인 조광조에게 그대로 계승되어 도학의 꽃을 피우기에 이르렀다.

조광조는 나이 17세 때 魚川察訪이 된 아버지의 임지인 희천에 가서 살게 되면서 45세가 된 김굉필 문하에 들어가 학문을 배웠다. 이때 조광조가 스승에게 배운 것도 역시 『소학』과 『근사록』이었는데, 학문을 배운 뒤에 조광조는 松都의 천마산에 들어가 조용히 독서하였는데 그 모습이 김굉필의 수련의 모습과 흡사하였다. 조광조는 스승을 뒤이어 도학을 숭상하였으며, 『소학』과 향약으로 인재를 육성하고 풍속을 교화하는 방법으로 삼았다. 그러나 조광조가 기묘사화로 綾城(능주)으로 귀양을 가게 되고, 얼마 안 있어 賜死되니 『소학』은 禁書가 되기에 이르렀다. 이 기묘사화를 겪으면서 당시의 유생들은 유학을 업으로 삼기를 꺼렸으며, 향리의 글방에서는 글 읽는 소리가 끊어질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나 조광조에 대한 後儒들의 평가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 중 율곡 이이는 『石潭日記』에서 다음처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理學이 전해지지 않았는데 고려 때 정몽주가 처음으로 그 단서를 열어 놓았다. 그렇지만 규모가 정밀하지 못하였고, 우리 조선에 와서는 김굉필이 그 단서를 접하였으나 그래도 크게 갖추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조광조가 道學을 창도하기에 이르러 배우는 자들이 모두 추존하였으며, 오늘날 성리학이 있게 된 것은 조광조의 힘이다.<sup>6)</sup>

율곡의 요지는 우리나라의 道統형성에서 김굉필과 조광조는 빼놓을 수 없는 학자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조선 중기의 성리학자에게는 공통적이었던 듯하다. 김종직에게서 김굉필로 그리고 조광조로 이어지는 도학의 전통이 호남지역에 접목되는 계기는 위에서도 서술한 대로 김굉필의 순천 유배이다.

김굉필의 유배지에서의 생활은 순천의 지방사료 및 유희춘의 『미암일기』 등을 통하여 부분적인 사실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김굉필은 순천에 있을 때도 고을의 유지들과 어울려 시를 짓거나 술 마시며 어울리기를 좋아하지 않고, 혼자서 고목아래를 배회하거나 스스로 飭身制行의 엄격함을 지켰다고 한다.<sup>7)</sup>

6) “我國理學未傳, 前朝鄭夢周始發其端, 而規矩不精, 我朝金宏弼接其緒, 而猶大著, 及光祖倡道, 學者翕然推尊之, 今之知有性理之學者 光祖之力也” 『石潭日記』 上卷(고전국역총서 『대동야승』 IV, 민족문화추진회, 1983, 38쪽.)

7) 조원래, 앞의 논문, 269쪽.

김굉필은 謫所에서도 흐트러짐이 없는 자세로 학문에 매진하고 찾아오는 門徒들에게는 자신의 학문을 전수하였던 것이다. 다음은 회천 謫所에 있을 때의 사정을 전하는 글이다.

선생은 유학을 흥기하시고 후생을 훈도하는 일을 자신의 임무로 삼았으므로 遠近에서 풍문을 듣고 사모하여 쫓는 자가 거쳐하시는 마을에 허다하게 모여들어 민가에 학도들이 넘쳐났으며, 매일 경서를 들고 강당에 오르니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였다. 선생은 가르침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재주에 따라 학문을 이루게 하니 훗날 세상에 이름이 알려진 자가 많았다.<sup>8)</sup>

이렇게 김굉필의 학문에 대한 풍문을 듣고 찾아온 제자 중의 하나가 조광조였던 것이다. 유배 중에 후진을 교육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修己治人하는 김굉필의 도학 의지와 實踐躬行하는 교육이념이 맺은 결실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김굉필의 교육의지는 순천 謫所에서도 발휘되었을 것이며, 그 일면을 『승평지』의 찬자인 李暉光은 다음처럼 전하고 있다.

그는 순천 謫所에 또 5년간이나 있을 때, 반드시 한두 명의 학문을 묻는 사람이 있어 세태의 의미를 논의 하였으나 道를 전수받은 자가 없었다. …… 그러나 지금의 儒者는 대개 모두 감화를 받고 흥기하고 있으니, 어찌 선생이 남겨주신 教誨가 아니겠는가?<sup>9)</sup>

김굉필의 교육이 순천지역의 유림사회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음을 전해주고 있다. 즉, 詞章 중심의 학문에서 實踐躬行的 도학 기풍의 학문으로 전환하는데 있어 김굉필의 역할이 컸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 순천 유배시기의 호남출신 제자로 崔忠成, 李勳, 尹信, 柳桂隣, 孟權, 張自綱, 崔山斗 등이 배출되었다. 이중 최산두와 류계린에 대해서는 행적이 추적되지만, 나머지 인물들은 그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다.<sup>10)</sup> 이렇게 김굉필에 의해 성리학적 학문의 기초를 닦은 호남의 인사들은 다시 조광조와의 만남에 의해서 호남사림 나름의 독특한 성격을 갖추게 되었다.

## 2. 조광조와 호남사림

조광조는 중종반정 이후 의지할 곳 없는 중종에게 儒述을 숭상하고 문치에 힘쓸 것을 권하면서, 성현을 본받아 至治를 일으켜야 함을 강조하였다. 『중종실록』 권25, 11년 12월 12일의 기사를 보면 다음 같은 조광조의 열변이 들어 있다.

聖上께서 마땅히 存養省察하는 공부와 함께, 나도 역시 여러 신하와 백성이 있어 요·순·탕·무가 임금 이었던 것과 다를 바 없는데, 어찌 요·순·탕·무처럼 다스리지 못하겠는가 하는 뜻을 세우신다면 끝내는 그들이 이룬 경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아랫사람을 진작시키는 것은 위에 있는 사람에게 달려있으니, 성

8) “先生以興起斯文，訓迪後生爲己任，遠近聞風慕從者，集所居里許多，人家學徒填溢，每日執經升堂座不能容，先生誨誘不倦，隨才成就，後多有名於世”(『景賢錄』上，「事實」)

9) “其在順天謫所，亦且五年，必有一二問學之人，而言論風旨，無傳道之者，……然今之爲儒者，蓋皆聞風而興起焉者，亦豈非先生之遺教也乎”(李暉光，『昇平誌』下，「事實」)

10) 이해준, 『기묘사화와 16세기 전반의 호남학파』, 『전통과 현실』 2, 고봉학술원, 1992, 152쪽.

상계서 먼저 덕을 닦아 사람들을 감동시키게 되면 아래에서도 감동되지 않는 사람이 없어 至治가 생겨나게 되는 것 입니다.

조광조가 바라는 것은 군주의 마음을 바른길로 인도하여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정치이상을 실현하는 것이다. 명목상으로는 유교의 기본적 정치구도인 치인을 위한 수신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것이지만, 조광조의 의도는 군주의 마음씀씀이에 따라 至治의 실현 가부가 달려있음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나아가 그는 군주에게 덕을 쌓는 일이 근본이므로 이에 힘쓰면 나머지는 애쓰지 않고도 저절로 다스려지므로 너무 자질구레한 國事に 관여하지 말고 大體에 속하는 일만 관장하고 남는 시간은 학문에 열중할 것을 강조한다.

여기서 나오는 ‘至治’라는 말은 조광조의 정치적 이상 형태를 지칭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는 왕에게 열정적으로 ‘지치’의 중요성을 설교하였고, 그 자신은 ‘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지치’라는 말은 본래 『서경』의 周書 「軍陣」篇의 “至治는 그윽한 향기를 발하여(馨香) 사람의 마음(神命)을 감동 시킨다”(至治馨香, 感于神命)는 구절에서 유래한 것이다. 주공의 말로 알려져 있는데, 지극히 훌륭한 정치의 효과를 향기에 비유하여 말한 것이다.

지치의 구체적 내용은 모든 인민을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만들면서 도덕적으로 仁義가 실현되는 사회를 목표로 하는 孔孟의 王道政治이다. 성리학이 크게 일어나면서 지치의 실현 방법도 더욱 구체화 되었다. 즉 성리에 의거해 자기 수양에 힘쓰고, 나아가 그것을 현실정치에 구현함을 목표로 삼는데 이것을 도학정치라고도 부른다.

도학은 성리학의 초기 모습으로 실천성이 강한 학문이다. 특히 후기의 성리학의 모습과는 달리 정치·경제적 요소가 강한 것이 그 특징이다. 즉 內聖外王을 추구함이다. 내면적으로는 성인의 인격을 갖추기 위해 수신하면서, 만백성을 위해 왕도를 실현하려는 治人을 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학정치에서는 정치의 근본 주체인 왕의 수신을 중요시하게 되고, 왕의 마음이 내성외왕의 도를 갖추게 되면 도학의 정치인 지치가 이루지고 그에 따라 말단의 실무적인 일은 저절로 잘 될 수 있다는 관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지치의 실현을 정치목표로 삼은 조광조에게 있어서 경연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sup>11)</sup> 왕의 마음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기회이고, 그러기 위해서 자신도 비상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조광조는 밤늦게 까지 강의할 책을 몇 번이나 읽고 되풀이 생각하여 정성을 다하였다. 이런 정치의 이상형인 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민폐를 혁파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에 조광조와 조광조의 정치사상에 동조하는 많은 신진의 유생들은 개혁의지를 가지게 되었다. 김평필에게 함께 배운 동문의 金絳는 內需司의 혁파와 여러 가지 토지 소유제한을 들고 나와, 토지점병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당시 민생의 폐해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가진자의 토지점병이었다. 내수사도 왕실의 특권을 이용하여 농민들의 토지를 빼앗아 배를 불리고 있었다. 기대승의 숙부인 기준도 朝講에서 검토포로 참여하여 전토를 가진자가 얼마 안되고 또 그나마 조금 갖고 있는 자도 생계유지가 어려워 유랑하고 있으며, 백성들은 농업보다 상업에 종사하기를 좋아하는 실정이니, 조세와 부역 가볍게 해주고 국가는 채용을 절약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런 주장들은 그들 개인만의 주장이 아니라 조광조를 중심으로한 신진사인들과 논의된 견해였을 것이다.

11) 조선조 국왕과 신하의 경연에 관한 것은 줄고 『조선 실학시대 군신간의 학문활동-『시경강의』를 통해본 정조와 정약용의 경우』(『남명학연구』 16집, 2003)를 참조바람.

이런 토지소유의 제한과 국용의 절약, 그리고 농업 장려에 관한 정책들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당시의 만연된 공신훈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공신훈의 공신훈 중에는 엉터리가 많고, 그로인한 국용의 낭비 또한 심각한 상태였으며,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정의가 사라지고 근거 없는 무고가 예사로 행하여졌기 때문이다. 이에 조광조를 중심으로한 신진들은 연산군을 몰아내는데 공을 세웠다하여 주어진 靖國功臣의 개정문제를 제의하였고, 그와 함께 폭넓은 인재등용을 위한 방법으로 賢良科라는 천거제도를 제의하였다. 이 두가지 정책은 기득권을 누려왔던 훈공신들의 경제적 발판과 정치적 입지를 뒤흔드는 것으로 대대적인 저항에 처해질 수 밖에 없었던 것들이다.<sup>12)</sup> 조광조의 이러한 혁신적인 개혁안은 모두 정치적 정의를 구현하고 민생의 안정을 도모한 것이었지만, 그를 중심으로한 신진층 및 지방의 재지사인층의 욕구가 내포된 것이기도 하다. 조광조가 아직 정계로 나오기 전인 용인 거처시기부터 그의 주변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 들었고, 조광조가 入朝한 후에는 이들의 논의가 정책화 되어 나타났다고 하겠다. 이 젊은이들 중에 호남지역의 인물들이 눈에 띄게 많았다. 그 중에서 최산두·윤구·유성춘등 김굉필의 학통을 이은 소장파의 士類들이라 할 수 있으며, 양팽손·양산보·신잠·김식·유운·박상·고운 등의 동료 및 제자들도 있다.<sup>13)</sup> 이들은 사회에 연류 되면서 상호간의 교류·결속을 더욱 공고히 다져갔다고 하겠다.<sup>14)</sup> 이들은 대체로 무등산을 중심으로 광주와 전남지역에 분포하면서 도학사상을 사상적 기저로 하면서 결속을 다져갔다. 그리고 중종대 후반부터는 차세대 사류들이 호남학문의 주요 담당층이 되었다. 유계린에게서 유희춘·성춘의 형제가 배출되고, 최산두에게서 김인후에게 이어지고 다시 정철·양자징등에게 이어졌다. 조광조의 막역한 친구였던 梁彭孫의 문하에 아들 梁應鼎이 있고 그 문하에 다시 정철·백광훈·최경창·최경희·이진영·최경운·정명세등이 나왔다. 송순은 양팽손과 宋欽(1459~1547)에게서 함께 배운 동문관계이고, 김인후의 스승이기도 하다. 이들에 관한 상세한 것은 장을 바꾸어 살피기로 한다.

### III. 『소학』 중시의 도학적 전통

기묘사화 이후 호남사류들은 관로를 기피하고 중앙진출을 꺼려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기묘사화의 피화를 직접 당한 양팽손이나 양산보등은 조광조의 賜死 후에 사환의 길을 접고 화순과 담양에 파문혀 생활하였다. 양팽손은 자제의 교육과 후진양성에 힘써서 아들 양응정이 다시 사환의 길에 나가게 되었으나, 양산보는 자식들에게 사환의 길로 나가지 말 것을 유언으로 남겨 그의 자손들은 소쇄원을 중심으로 계산풍류의 생활을 보냈다. 이런 현상은 김굉필 문하의 호남사류에게서도 보이는 현상으로 出處에 따른 공감대가 형성된 듯 하다.

따라서 기묘사화기를 뒤이은 명종 - 선조대의 호남지역의 학문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중앙에서 더욱 활기찬 사환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인사들의 도학적 전통과 광주 전남지역을 무대로 계산풍류의 문학적 전통이 그것이다.

우선 도학적 전통의 대표적 인사로는 김굉필의 학맥을 이은 김인후와 유희춘, 다시 이들의 정치사상을 계승한 기대승과 이발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문학적 전통을 세운 인사로는 송흠 문하의 양팽손과 송순, 그리고 그들의 제자인 정철과 백광훈·최경창등을 들 수 있다. 본

12) 정두희, 「기묘사화와 조광조」, 『역사학보』 146호, 1995.

13) 『己卯明賢補遺』(上·下), 『대동야승』 권10.

14) 조원래 앞의 논문, 272쪽.

소고에서는 호남학문의 도학적 전통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김인후의 학문

김굉필의 직전제자인 최산두는 기묘사화 때 同福에서 15년간 유배생활을 보냈을 정도로 절의가 뛰어난 인물이었다. 그의 절의와 학문은 해남 윤씨 집안의 尹衢·柳希春의 형인 柳成春과 함께 호남3걸로 지칭되었다. 특히 配所에 있으면서 장성의 김인후에게 김굉필의 실천적 도학정신을 계승하여 호남지역의 대표적 학자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 그러나 그의 학문의 요체는 문집으로는 남아있지 않고 후손들에 의해 엮어진 『新齋崔先生實記』가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최산두의 학문적 성격은 그의 제자인 김인후의 학문을 통하여 유추해 볼 수가 있을 정도이다.

김인후의 학문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 인사는 10세때 만난 전라관찰사 김안국과 18세 때 만난 최산두이다. 김안국은 조광조와 함께 김굉필에게서 수학하였으며, 『향약』과 『소학』의 보급에 적극적이었던 인물이다. 김인후는 김안국에게서 『소학』에 대한 훈도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인후가 『소학』을 중시하였던 것은 그의 친구 梁山甫에게 보낸 시에도 드러나고 있다.

오래도다 우리 도 행하지 못해  
 쓰임없는 빈 이름만 지켜왔으니  
 큰줄기(大本)를 세울자 그 누구며  
 큰법(大經)을 경륜할자 그 누구라  
 ……  
 우리 晦翁 선생은 끊어진 학문을 이어받아  
 정밀하고 곡진한 절목으로 『소학』을 역어내어  
 저 옛날 君師의 시절을 회복하고  
 날로 쓰는 彝倫을 소상히 밝히셨도다  
 ……  
 진실로 소학의 도 아니 밝히면  
 부모가 천지란길 뉘 생각하리<sup>15)</sup>

김인후와 양산보의 관계는 각별하다. 양산보가 조광조를 잃은 실의로 소쇄원의 처사로 살아 감에 그의 아들 양자징을 제자로 받아들여 교육시켰고, 또 자신의 사위로 맞아들였다. 결국 양산보와 김인후는 사돈 관계였던 것이다.

김인후와 조광조 계열의 인사들과의 밀접한 관계를 증명하는 사례는 이 외에도 많다. 사화에 희생된 기준에게는 일찍이 붓을 선물 받을 정도로 인정을 받았으며, 18세 때는 사화로 유배 온 최산두를 찾아가 본격적인 학문수업을 받았다. 김인후의 학문은 김안국과 최산두등 조광조 계열에 속하는 여러 학자들의 지도아래 성숙하였고, 그들을 통하여 기묘사립의 도학

15) “久矣哉不明以不行，守無用之虛名，孰建立乎大本，孰經綸乎大經 ……吾晦翁絕學之有續，輯小學節目之委曲，復古昔君師之施設，明日用彝倫之昭晰。 ……苟不明小學之要道，孰深思父母之天地……” 『河西全集』 1권, 「孝賦次梁山兄彦鑰山甫韻」

정신을 계승하였을 것이다.

김인후는 중종 35년 그의 나이 31세 때 문과에 급제하였고, 삼년 뒤 1543년에 경연에 참여할 기회를 얻어 국왕을 가까이서 모실 수 있게되자 조정의禁畧를 깨고 조광조 일파의 복권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하였다.<sup>16)</sup>

근래 이를 데 없는 小人(沈貞과 李沆을 가르킨다)으로서 죽은 다음에도 죄가 남을 자들은 復職되었습니 다. 하지만 한때 잘못된 일은 있었을 지라도 그 본심으로는 나라를 속인 적이 없는 이들(조광조, 金湜, 기준, 尹自任 및 韓忠등을 가르킨다)은 임금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였습니다. 은혜를 입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그 사람들이 숭상하던 글(『소학』과 『향약』 등을 가르킨다)도 모두 폐기되어 쓰이지 못합니다. 매우 부당합니다.<sup>17)</sup>

이런 김인후의 요청에 중종은 대신들의 동정만 살피고 분명한 뜻을 밝히지 않자, 그는 이틀 뒤 다시 조광조 등에 대한 처벌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특히 기묘사화의 여파로 『소학』과 『향약』의 글이 모두 폐기되어 쓰이지 않게 되었음을 강조하였다고 한다.<sup>18)</sup> 경연석상에 함께 있던 李彦迪도 김인후의 주장을 적극 지지하였고, 다음해에는 宋世珩이 보다 정밀한 논의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김인후의 이러한 용기있는 행동은 그의 학문이 성숙되는 과정에서 계승받은 조광조등의 정치적 유산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김인후는 34세 때는 弘文館 박사 겸 世子侍講院의 說書가 되어 성과 열을 다하여 세자를 보필하였는데, 이때의 세자가 바로 인종이다. 김인후는 조광조가 인종에게 至治의 꿈을 키웠던 것처럼 인조를 통하여 자신의 경세를 실현하여보고자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김인후는 인종이 즉위하자 기묘사화로 희생된 기묘명인의 복권운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인종은 등극한지 8개월 만에 승하하고, 김인후는 실의에 가득차 고향으로 돌아와 은거하면서 술과 시로 세월을 보냈다. 본인은 을사사화를 일으켜 사림을 박해한 명종 때의 집권자들과는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은사를 방불한 생활을 하였다.

16) 백승중, 「16세기 조선의 사림정치와 김인후」, 『진단학보』 92호, 진단학회, 2001.

17) 『중종실록』 19집, 「중종 38년 7월 20일조」

18) 앞의 책, 「중종 38년 7월 22일조」

따라서 김인후의 학문은 落鄉을 분수령으로 하여 전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기에는 과업과 수양을 위한 학문으로 『소학』과 『근사록』 등 실천을 위한 공부가 중심이었다면, 후기에는 『大學』을 천착하고 『주역』의 復卦를 중시하면서 性理說 연구를 천착하였다. 「太極圖說」과 「西名」을 천 번이나 읽으며 사색을 쌓았다고 한다. 그는 李恒과 「太極圖說」을 토론하면서 이항의 태극·음양을 一物로 보는 理氣一物說에 반론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대승이 이항의 理氣互發說에 의심을 갖고 질문하자 면밀하게 토론하였으며 이 토론이 기대승과 이항 사이의 이른바 四七論辨으로 전개 되었다.<sup>19)</sup>

김인후의 학문방법을 그가 자제와 문인들에게 행한 교육과정을 통하여 살펴보면, 공자가 제시한 ‘下學上達’에 근거하고 있었다. 우선 10년 정도 『소학』을 읽게 하여, 충분히 숙지토록하고, 다음에 『대학』으로 나가게 하는 주자학적 학문방법을 따랐다. 소학에서 대학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근사록』을 공부하게 하였는데, “사서로 올라가는 사다리이고 道에 들어가는 문”이라고 중시 하였다.<sup>20)</sup> 『근사록』을 四書공부의 앞에 두었다는 것은 도학적 관점을 갖추고 경학의 세계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함일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경학의 이해를 주자의 도학적 관점을 통하여 재정립하려는 것이기도 하다.

『소학』이 성리학적 정신을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하여 향촌질서의 확립을 추구하는 입장이라면, 『대학』은 군주의 심성을 바로잡아 성군의 이상에 근접시켜 중앙정치의 안정을 추구하는 입장이다. 조선 초기 성리학 수용기에 김종직과 그의 제자 김굉필·정여창 등은 『소학』의 이해와 실천을 통하여 성리학적 이념을 현실에 구현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초기사림의 김종직 등에게서 중기사림인 기묘사림을 거쳐 후기사림으로 내려오면서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난다. 즉 초기 및 중기의 기묘사림들은 『소학』과 향약의 보급을 통하여 성리학 이념의 구체적인 실현을 통해 향촌사회의 질서화를 추구하려 하였다. 반면에 후기사림들은 향촌사회에서 성리학 이념을 구현하여 가는 것에 현실적 어려움이 큼을 깨닫고 오히려 『대학』적 가치를 군주의 마음을 통하여 실현하여 중앙정치의 질서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하였다.<sup>21)</sup>

그런데 김인후가 인종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한 정치는 『소학』의 근본정신이 모든 사람의 일상생활에 구현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인종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경제의 이상을 접고 향촌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소학』적 실현은 향촌사회에서 이어졌다. 김인후는 本家が 있던 전라도 장성의 대맥동과 寓居地였던 전라도 순창의 어암에서 군수로 파견된 관리들과 가까이 지냈다. 지방관들로부터 선물을 받기도 하고 잔치에 초대받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 행정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던 듯하다. 薛座首를 위해 쓴 輓詞를 보면 김인후가 재지사족으로 지방의 통치행위에 관여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sup>22)</sup> 김인후는 또 지방의 향교에 출입하면서 교생들을 격려하고 門下에 찾아오는 제자들에게 성리학적 이념을 전수하였다.

하늘 땅 그 사이에 두 사람 계시는데,  
仲尼가 元氣라면, 紫陽(주자)은 참일세.

19) 금장태, 「하서 김인후의 수양론」, 『하서 김인후의 사상과 문학』 제2집, 하서기념회, 2000, 21쪽.

20) 『河西全集』 권11, 「孝經刊誤跋」

21) 이태진, 「李晦齋의 聖學과 仕宦」, 『한국사상사학』 1호 참조.

22) “龜勉扶襄病, 同心理一鄉, 吾歸公又逝, 追念益悲復” 『하서전집』 권5, 「挽薛座首」

마음 가라앉혀 탄 길로 가지 말고,  
늪어버린 이 한 몸 흐뭇하게 해다오<sup>23)</sup>

김인후의 제자로는 문과에 급제한 큰사위 조희문과 양산보의 아들이며 둘째 사위인 양자징, 奇孝諫, 변성운, 金澄 등이 있다. 또 김인후가 오랫동안 학업을 지도한 것은 아니지만 문인으로 자처하는 이들 가운데에 李後白, 기대승, 金千鎰, 朴純 및 鄭澈등이 있다.

K C I

---

23) “天地中間有二人, 仲尼元氣紫陽眞, 潛心勿向他岐惑, 慰此摧頽一病身” 앞의 책, 권7, 「示文人」

## 2. 유희춘의 학문

김인후의 학문적·정치적 입장을 같이 하였던 호남의 사림으로 먼저 유희춘을 꼽지 않을 수 없다.<sup>24)</sup> 김인후와 유희춘은 절친한知己사이를 넘어 사돈지간이기도 하다. 유희춘이 귀양가 있을때, 불초하다는世評에도 불구하고 유희춘의 셋째 아들 유정렴을 사위로 맞이하였다.

유희춘가는 본래 세거지는 영남쪽이었으나, 고조인 文浩 때에 光陽으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順川으로 옮겨 경제적 기반을 형성하였다. 하지만 증조·조부가 모두 출사하지 못하였으므로 가계는 그다지 풍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父인 유계린 때 順天에서 海남으로 옮겼는데 최부의 사위가 되었기 때문이다. 유계린의 최부의 사위가 되면서 海남에 상당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런데 유희춘의 유적이 현재 담양에 남아있는 것은 그의 부인이며 여류문인 이었던 송덕봉의 實家가 담양이었기 때문이다.

유희춘의 학문은 두 방면에서 이루어졌다. 유희춘에 있어서 아버지 유계린은 첫스승이었다. 유계린의 학문은 귀향 온 김굉필에게 도학을 배웠고, 김종직의 제자로 무오사화 때 賜死된 金溥의 사위가 되어 그 학문을 계승하였다. 따라서 유희춘은 아버지를 통하여 김굉필과 김종직의 학문을 전승 받을 수 있었다. 또 한 갈래는 유희춘은 김인후와 함께 최산두에게 나아가 학업을 배웠고, 뒤에 선조4년(1571)에는 최산두의 문집을 간행하였다.<sup>25)</sup> 이렇게 김굉필계통 기묘사림과의 영향을 받은 유희춘은 ‘經學을 소중히 여기고 詞章을 천시’하는 학문 경향을 가지게 되었다.

유희춘은 古書를 多讀하여 僻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다. 현재 그의 학문적 업적은 선조의 명에 의하여 편찬된 『國朝儒先錄』과 『歷代要錄』에서 찾아 볼 수 있으나, 四書三經의 吐釋을 명령받은 일이나, 四書와 五經의 諺解를 명령받은 사실<sup>26)</sup>에서도 그 개괄적인 규모와 깊이를 짐작할 수 있다. 그의 저작 중 『國朝儒先錄』은 기묘사화의 被禍者들이 伸冤되자 이들의 학문과 학덕을 기리기 위해 조광조·김굉필·鄭汝昌·이언적의 저작을 모으고 여기에 이들의 활동상과 행장을 첨부한 것이다. 이 일이 유희춘에게 맡겨진 것은 호남사림의 중심으로 그의 학문에 대한 선조의 신뢰를 나타내는 일이기도 하다. 또, 『朱子文集語類註解』는 주자의 학문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세밀한 주석집이다. 주자의 학문이 전해져 확산되어 가는 시점에서 유희춘의 이러한 면밀한 작업의 의의는 상당히 주목을 요하는 사건이다. 주자 학문의 진수를 계승하고자 하는 의욕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유희춘은 경연에서 四書·『小學』·『근사록』·『대학연의』·『통감장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유희춘의 학문의 방향을 시사하는 것으로 宋學위주의 학문풍토가 조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학문적 기반과 사우·문인관계는 주로 향리를 중심으로 한 전남지역에 퍼져있다. 문도 중에는 유배지 鐘城의 문인들이 포함되어 있다.

## 3. 기대승의 학문

24) 宋宰鏞, 「眉巖 柳希春의 生涯와 學問」, 『退溪學研究』 第10輯, 檀國大學校 退溪學研究所, 1996; 이성임, 「조선중기 어느 양반가문의 농지경영과 노비사환-유희춘의 미암일기를 중심으로-」, 『진단학보』 80호, 1995; 정재훈, 「미암 유희춘의 생애와 사상」, 『남명학연구』 3호, 남명학연구소, 1993.

25) 『미암일기』 辛未 5월 18일조

26) 『미암일기』 선조9년 4월 4日條 참조.

이렇게 김인후와 유희춘에게 수용된 주자학은 다음 세대인 기대승에 이르러 그 꽃을 피웠다고 하겠다. 기대승은 이황과의 사단칠정논변으로 유명하다. 두사람 사이의 7년간에 걸친 논쟁은 한국 성리학의 이론적 탐구의 심화를 가져와 차원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주자문록』의 저술은 주자학을 수용하여 확산시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기대승의 관향은 행주로 지금의 경기도 고양군이다. 대대로 서울에 살아오다가 기대승의 부친 奇進이 동생인 奇遵이 기묘사화에 관련되어 죽게 되자 벼슬에 대한 뜻을 접고 광주로 이사하여 금정땅에 살았다. 기대승의 학문적 경향은 부친과 숙부로부터 家學을 전수받아 ‘爲己之學’에 힘썼다. 특히 효제와 같은 실천적 문제에 매진하였고, 科學를 위한 문장공부에는 힘쓰지 않았다. 경전을 널리 종합하고 미묘한 곳을 정미하게 연구하는 한편, 고금의 史記를 넓고 깊게 통달하고, 九流·百家등 이단의 학문까지도 모두 읽어 요점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경연에서 자상한 논설과 간절한 마음으로 자주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특히 그는 선조에게 여러번 『소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자신은 시골에서 성장하여 학문을 몰랐는데, 종종 말년에 宋麟壽가 감사가 되어 『소학』을 읽으라고 권하여 그책을 얻어 읽고 비로소 성현의 언행을 알게 되었다고 하고, 『소학』의 가치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옛사람들은 먼저 『소학』을 읽어서 本源을 함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대학』에서 격물치지를 먼저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후세에서는 『소학』을 읽지 않으므로 학문에 근본이 없어 격물치지의 공부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소학』은 나이가 적은 사람만 읽을 것이 아니라, 장성한 사람도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근래 여항 간에서는 『소학』을 읽는 자가 매우 적으니, 이것은 교화가 밝지 못한 소치입니다. 성상께서 비록 『대학』을 진강하시더라도 『소학』을 또한 유의하여 보셔야 할 것입니다.<sup>27)</sup>

기대승은 성리학적 이론적 탐구를 하기 전에, 먼저 효제와 같은 인륜의 기초를 실천하는 공부인 「소학」을 배울 것을 강조한다. 여기서 『소학』은 도학적 세계관을 형성하고 그것을 실제 생활윤리로 실천하여 가는 데 근간이 된다. 理氣論과 같은 형이상학적 범주의 의미를 탐구하기 전의 실천공행의 학문으로서 중요시 한 것이다. 그가 『소학』을 강조함에는 초기 사림들이 보여준 개인윤리로서의 소학의 효율성을 넘어서서 對 人民의 教化策으로서의 의미가 강조되었다. 기대승은 진강할 적에 틈이나면 종종 조광조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왔다.

신이 지난번에 조광조의 어짊을 논하고 억울하게 죄를 입은 뜻을 말씀드렸습니다. 조광조는 범상한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품이 아름답고 학문이 순수하고 올바랐으니, 참으로 불세출의 대유였습니다. …… 그 당시 선비들은 모두 『소학』을 근본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이를 섬기고 군주를 섬기는 도리를 잘 알았습니다. 지금 조정과 여항의 사이에서 아직도 선행을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다 그의 남은 교화입니다. 그런데 지난날 소인들은 어진 선비들을 모함하려고 하면서 이름할 만한 죄가 없으면 말하기를 ‘이것은 바로 『소학』의 무리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소학』은 바로 성현의 훌륭한 말씀이니, 설혹 『소학』을 읽고도 마음이 바르지 못한 자가 있다한들 이 어찌 『소학』의 죄 이겠습니까?

27) “古人先讀小學，涵養本源。故大學，先言格物致知。後世則不讀小學，故學無根本，不能知格致之功。小學非但年少人所讀，長成之人亦可讀也。近來閭巷之間，讀小學者絕少，此教化不明之致也。自上雖進講大學，而小學亦可留意觀覽也”(『論思錄』上卷)

士禍期에 있어서 『소학』의 浮沈은 곧 도학적 이상정치의 부침을 의미하였다. 기묘정신을 가학으로 이어받고 있는 기대승에게 있어서 『소학』이라는 텍스트는 텍스트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고 하겠다. 소학정신의 구현이 바로 요순같은 군주를 만들고, 요순의 정치를 향촌에 실현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대학』이 군주의 마음을 바로잡아 성인의 정치를 실현할 것을 기대하였다면, 『소학』은 향촌의 교화를 강화하여 『대학』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기대하였다고 생각된다.

『대학』의 가름침은 덕을 밝히고 백성을 새롭게 하는 것이니, 上께서 학문을 하시면서 혜택이 아래에 미치지 않는다면 미안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일개 필부가 선을 행하여도 혜택이 남에게 미치는데 더구나 군주이겠습니까. 청컨대 각도 감사에게 하유하시어 지방 향교의 유생으로 하여금 다 『소학』과 『삼강행실』·『이륜행실』 등의 책을 읽게 하소서. 그러면 자연 사방에 교화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sup>28)</sup>

교화를 펴고 인재를 기르는 일을 지방관의 직책으로 보고 있는 기대승에게 있어서 소학은 그야말로 교화를 펴고 유생을 가르치는 교재로 안성마춤이었을 것이다. 특히 당시는 잦은 倭亂으로 지방관들이 병기의 제조 및 보관상태등에 관심을 집중할 뿐, 상대적으로 교육에 소홀하였기 때문에 더욱 소학을 통한 유교적 교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 IV. 맺음말

김종직을 비롯한 초기 사림 및 김굉필·김안국·조광조 등에 의해 강조되었던 소학의 정신과 그 교육은 호남학문을 형성하고 그 인재들을 배출함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16세기의 사회기라는 불행한 상황아래 있으면서 유학의 근본이념을 현실에 실천하고자 하였던 소학의 정신은 호남학문에 독특한 성격을 배양하기에 이르렀다.

김굉필의 도학정신을 계승하고, 다시 조광조의 개혁정치에 행동을 같이한 호남의 사류들이 끝까지 신의를 지키면서 유학정신을 구현하려 하였던 것은 이러한 소학정신에 근거한 것은 아니었을까하고 생각한다.

호남의 대표 사림이라고 일컬어지는 김인후·유희춘·기대승의 학문에서 보여지는 『소학』 중시의 정신은 호남사림을 특색지우는 하나의 요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기라는 불우한 시기에, 타의에 의해 유배와 낙향을 체험하는 가운데 원대한 경세의 꿈을 접고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면서 유교적 지식인들은 무엇을 추구할 수 있었을까? 그들의 문제의식의 중심에는 향촌교화가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실현하기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은 소학을 통한 향촌교화였을 것이다. 특히 호남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유교적 교화의 확산이 빠르지 않은 지역이었으므로 재지사족들은 향촌교화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절감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소고는 이렇게 소학의 중시를 호남학문의 한 특색으로 상정하면서, 차후의 과제로는 같은 시기에 형성된 계산풍류의 호남한문학의 특색을 고찰할 필요성을 제고한다.<sup>29)</sup> 조광조가 능주

28) 『논사록』 상편.

29) ‘계산풍류’에 관해서는 임형택의 「16세기 光·羅州 지역의 사림층과 송순의 시세계-계산풍류의 발전」(『한국문학사의 논리와 체계』, 창작과비평사, 2002)를 참조함.

에서 사사된 후, 절친한 친구였던 양팽손은 더 이상 벼슬을 하지 않고 月谷에서 자식과 후진양성에 전념하였다. 또 조광조의 제자로 17세의 약관으로 현량과에 응시하였던 양산보는 스승이 사사된 뒤 경세가의 꿈을 접고 산간에 묻혀 평생을 처사로 살았다. 이들 두사람은 사회기의 광주·전남지역의 문화를 이해함에 매우 중요한 인물들이다. 무등산권의 누정문학이라 지칭되어온 가사문학등도 호남사림의 한 특색으로 그들의 학문적 지향과 연계지어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 참고 문헌

『眉巖日記』, 『論思錄』, 『中宗實錄』, 『河西全集』, 『大東野乘』, 『己卯明賢補遺』, 『昇平誌』, 『景賢錄』, 『石潭日記』, 『論語』, 『擇里志』, 『高峰集』

고영진, 「16세기 호남사림의 활동과 학문」, 『남명학연구』 3호, 남명학연구소, 1993.

금장태, 「하서 김인후의 수양론」, 『하서 김인후의 사상과 문학』 제2집, 하서기념회, 2000.

백승중, 「16세기 조선의 사림정치와 김인후」, 『진단학보』 92호, 진단학회, 2001.

宋宰鏞, 「眉巖 柳希春의 生涯와 學問」, 『退溪學研究』 第10輯, 檀國大學校 退溪學研究所, 1996.

이병휴, 「현량과 급제자의 성분」, 『대구사학』 12·13합집, 1977.

이성임, 「조선중기 어느 양반가문의 농지경영과 노비사환-유희춘의 미암일기를 중심으로-」, 『진단학보』 80호, 진단학회, 1995.

이태진 「李晦齋의 聖學과 仕宦」, 『한국사상사학』 1호.

이해준, 「기묘사회와 16세기 전반의 호남학과」, 『전통과 현실』 2, 고봉학술원, 1992.

임형택, 「16세기 光·羅州 지역의 사림층과 송순의 시세계-계산풍류의 발전」, 『한국문학사의 논리와 체계』, 창작과비평사, 2002.

정두희, 「기묘사회와 조광조」, 『역사학보』 146호, 1995.

정재훈, 「미암 유희춘의 생애와 사상」, 『남명학연구』 3호, 남명학연구소, 1993.

조원래, 「사회기 호남사림의 학맥과 김평필의 도학사상」, 『동양학』 제25집, 1995.

한예원, 「조선 실학시대 군신간의 학문활동-『시경강의』를 통해본 정조와 정약용의 경우」, 『남명학연구』 16집, 2003.

<논문투고일 : 2004.6.30. 심사완료일 : 2004.7.31. 게재확정일 : 2004.8.13>

<Abstract>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Honam* Study  
in *Sahwa* period in the 16th century

Han, Ye-won

Under the assumption that '*Honam Saryu*' has a distinctive nature, which differs from that of *Yeongnam Sarim*(groups of Confucian scholars) or *Kiho Sarim* in their formation and development, this study aims to demonstrate validity of the independence of *Honam Sarim* from *Kiho Sarim*.

First, noticing that the academic vein led by Kim Gweng-Pil and Jo Gwang-Jo played an important role in formation of the *Sarim*(groups of Confucian scholars), this study examines their academic characteristics and academic relations between *Youngnam Sarim* and *Honam Sarim*. Kim Gweng-Pil inherited moral philosophy to the *Honam Saryu* in Suncheon, his exiled place. Choi San-du and Yu Gye-rin who had been educated by Kim Gweng Pil educated Kim In-who and Yu Hee-chun, main members of *Honam Sarim*, and then Ki Dae-Seung followed them.

Though the scholars of *Honam Sarim* were suffered in the *Sahwa*(massacre of scholars) period, they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reformative politics led by Jo Gwang-Jo, which resulted in their exile or retirement. However, they participated in enlightenment of country people actively, proposing realization of principles presented in *Sohak*. And they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improvement in the Confucianism through hard study of the Confucian theorie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ir practice of village education and serious consideration of *Sohak* as characteristics of *Honam* study.

Key words : *Honam Sarim*, *Sawha* Period, *Sohak*, *Dahak*, Education of Country People, *Su-ki-chi-in*